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명군 참패

선조25년 6월 20일.

선조 일행은 가산, 정주, 선천을 지나 용천에 이르렀다. 평양성은 이미 왜군이 점령하여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형국이었다. 다만, 남해에서 이순신의 수군이 왜수군을 맞아 연전연승하고 있는 까닭에 평양성의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더 이상 북진을 못했다. 이순신의 수군이 남해 제해권을 쥐고 왜군의 군수보급 해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좌의정 윤두수가 아꼈다.

“오늘의 행차는 명나라에 가서 하소연하기 위해 빨리 가는 것이오나 다만 갑자기 의주에 이르면 민심이 더욱 놀라 수습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지금 적세가 조금 늦추어졌으니 먼저 의주 관원으로 하여금 흩어진 백성을 모으게 한 뒤, 행차가 곧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 믿게 하고 나서야 천천히 나아가면 멀고 가까운 곳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선조는 윤두수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바로 의주로 가지 않고 3일 후에 들어갔다. 일행은 동쪽을 향해 통곡하고 서쪽을 향해 네 번 절했다. 의주목사가 공무를 보는 용만관을 행재소로 삼았다. 평시라면 행궁이라고 불러야 옳았다. 그런데 의주성은 뜻밖에 적막했다. 양민들이 모두 피난 가버리고 없었다. 개나 닭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선조를 호종한 관원 수십 명은 행재소 근처의 비어 있는 민가를 찾아가 피곤한 몸을 누였다.

그러나 승지 등 신하들은 잠을 자지 못한 채 꼭두새벽에 행재소로 불러갔다. 선조가 의주 행재소에서는 파천 길에 입었던 전포를 벗어버리고 곤룡포 차림에 면류관으로 위엄을 세우려 했는데 그것들이 분실돼 소동이 일었던 것이다. 평양성을 떠난 뒤 파천 길을 서두르면서 어느 관아에 놓고 와버린 것이 분명했다.

곤룡포와 면류관을 챙기지 못한 채 떠난 지밀상궁의 큰 실수였다. 선조가 비변사 당상관 신잡에게 말했다.

“신 대감이 나서야겠소. 과인이 거쳐 온 숙소를 살펴 찾아오시오.”

“전하 즉시 용천부터 가 보겠사옵니다.”

신잡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의주 용만관을 떠났다. 신잡은 용천부터 안주까지 차례차례 선조가 묵었던 관아를 점고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곤룡포와 면류관은 없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안주에서 용천까지 되짚으며 관아를 점고했지만 찾지 못했다. 관아를 찾아가 그곳의 관원에게 당상관으로서 위엄을 부리며 지시했지만 영이 서지 않았다. 관아의 구실아치 관노들마저 신잡의 지시를 외면하거나 무시했다. 선조 일행이 묵었던 관아는 대부분 도둑떼가 들어 먹고 남은 식량을 노략질한 자취가 역력했다.

결국 신잡은 허탕을 치고 의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의주 동문 밖에서 신잡을 기다리던 가주서 강욱이 달려와 물었다.

“대감님, 곤룡포를 찾으셨습니까?”

“도적 떼가 가져간 것 같네.”

“면류관도 말입니까?”

“기가 막힌 세상이네. 전하의 옷과 모자를 훔쳐가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네.”

“도적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만.”

“무도한 도적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답답하네.”

“무슨 일을 저지르다니요?”

“쓸모가 없으니 도적들이 혹시나 짓밟아버리지 않을까 두렵네.”

신잡은 행재소에 들어가 선조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선조는 윤두수를 불러 곤룡포와 면류관을 훔친 도적을 붙잡아서 찾아오도록 지시했다. 윤두수가 아뢰었다.

“전하, 강계 군수를 선전관으로 삼아 훔친 도적을 잡아 찾아오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잡아온다는 말입니까?”

“함경도에는 도적의 소굴이 많으니 그곳으로 가야 잡을 것이옵니다.”

“김억추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소? 억추는 함경도 변경에서 공을 많이 세운바 있소.”

“전하, 김억추는 행재소를 수비하고 있으니 강계 군수를 보내야 하옵니다.”

“좌의정 뜻대로 하시오.”

선조는 잃어버린 곤룡포와 면류관에 집착했다. 곤룡포가 아닌 붉은 비단옷을 입고 있으니 임금으로서 위위가 서지 않았다. 신하들은 비단 바지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이 마치 명나라 장사치 같아서 쳐다보기가 민망했다.

물론 신하들도 하나같이 궁상맞았다. 한양을 떠날 때 대부분 관복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곤룡포와 면류관을 훔친 도적 떼를 체포하러 갔던 강계 군수는 함경도 철령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말았다. 함경도 군관들의 협조를 받아 겨우 면류관과 곤룡포를 훔친 도적 떼가 지나간 곳을 찾았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다. 도적 떼가 곤룡포와 면류관을 버리고 갔는지 떠도는 유랑민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다녔던 것이다.

면류관에 달린 금과 옥은 하나도 없고 사각 틀은 엉망으로 이지러져 있었다. 또한 곤룡포 비단자락은 누군가가 다 찢어가 버리고 손바닥 크기의 흙 묻은 비단 조각만 뒹굴었다. 강계 군수는 그것이라도 수습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도승지 유근을 만난 강계 군수는 비통하게 말했다.

“대감, 어찌 이런 해괴한 일이 있습니까?”

“전하를 잘 모시지 못한 우리 허물도 크오. 그러니 당장에는 이 일을 전하께 보고하지는 않겠소. 전하를 위로해드리지는 못할망정 괴롭게 해서는 안 될 일이오.”

유근은 선전관인 강계 군수에게 비밀에 부치도록 지시했다.

도적 떼가 훔쳐 간 곤룡포와 면류관이 유랑민들에게 짓밟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윤두수가 명나라 원병을 요청하러 요동으로 들어간 뒤 선조는 더욱 불안해했다. 아침 저녁로 신잡을 불러 물었다.

“왜적의 형세가 어떠하오?”

“남해에서 이순신이 제해권을 쥐고 있으니 소서행장이 함부로 평양을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소?”

“바닷길을 통해서 군사와 군량을 보급 받지 못하기 때문이
입니다.”

“만약 평양의 왜적이 의주로 온다면 과인은 어찌해야 하겠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된 까닭은 전하의 행차가 여기서 멈추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 평안도 인심이 크게 어지러워진 것은 순전히 전하의 행차가 요동으로 건너가시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옵니다. 강을 건너신다면 이곳의 인심이 어떻게 변할지 헤아리기 어렵사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과인의 신세가 처량하오.”

신잡은 공손한 말투로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무인 기질이 다분했다. 그의 둘째동생은 탄금대에서 죽은 신립이었고, 셋째 동생은 임진강에서 왜적을 방어하다가 전사한 신갈이었다. 그리고 둘째아들 신경지는 탄금대에서 작은아버지를 따라 함께 순절했던 것이다. 신잡이 또 아꼈다.

“전하께서 요동으로 건너가신다면 평민이 될 것이옵니다. 호종하는 대신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옵니다. 차라리 여기서 평민으로 자처하시겠다는 각오로 버티신다면 난리를 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잡의 직언은 압록강 너머로 물러서지 말고 배수진을 치라는 말이였다.

“경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왜적의 형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과인은 대비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오.”

“전하께서 여기 계시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만약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통역관 무리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만 믿고 싸우고 있는 나라 안의 의병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이옵니다. 분전하고 있는 여러 장수들은 패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하께서 요동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경의 뜻을 잘 알겠소.”

마침내 7월 초에 명나라 원병이 곧 온다는 희소식이 날아왔다. 그러나 원병의 규모는 너무 작았다. 또 다시 대신들이 명나라로 건너가 통사정하고 하소연해야 될 규모였다. 명나라 황제 만력제가 평양성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왜군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한 결과였다.

부총병 조승훈은 요동 수비병 3천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 너머에 진을 쳤다. 원병 장수 하나가 시기를 보아 압록강을 건너 바로 평양 밖 순안으로 간다는 공문을 가져 왔다. 조선의 임금이 의주에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바로 평양 쪽으로 간다는 무례한 공문이었다.

어쨌거나 바빠진 사람은 도원수 김명원이었다. 김명원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3천 명의 관군을 거느리고 순안으로 내려가 합세하려고 했다.

“전하, 왜적을 무찌를 때가 왔사옵니다.”

“황제께서 천병(天兵)을 보내주시니 마음이 놓이오.”

“하오나 천병의 규모가 작아 걱정이 되옵니다.”

“명나라 군사는 하늘에서 내린 천병이오. 왜구 출신이 많다는 왜군과 다를 것이오.”

“신이 지휘하는 군사 3천 명을 보태면 전력이 배가되기는 하옵니다.”

“반드시 평양성을 수복하시오.”

“전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김억추 방어사를 관군의 수군대장에 임명하시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김명원이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그러나 선조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김억추의 직책은 아직도 평양 방어사이지만 행재소를 수비하는 장수들 가운데 행수였던 것이다. 한참 만에 선조가 말했다.

“어째서 김억추가 필요하오?”

“활을 잘 쏘고 두만강에서 만호를 지낸 장수로 도강전술에 능할 것이옵니다.”

“하긴 두만강 전술이나 대동강 전술은 비슷하겠소.”

“그렇사옵니다.”

“수군대장에 임명하면 잘 할 것 같소.”

“전하, 신은 수군대장으로 김억추가 적격이라고 생각 하옵니다.”

“허나 이번에는 아니 되오.”

선조는 무 자르듯 단호하게 말했다. 김명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지 신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여기 용만관을 수비하는 장수들이 많지만 과인이 신임하는 사람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오. 과인은 억추가 일찍이 교통기를 들고 활을 쏘는 모습을 직접 보았소. 그래서 억추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오.”

“용만관의 수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더 이상 김억추를 요구하지 않겠사옵니다. 허지만 용만관이 안정되면 그때는 신이 다시 김억추를 요구해도 되겠사옵니까?”

“그렇게 하시오.”

김명원은 행재소를 나온 뒤 김억추를 불렀다. 김억추는 행재소 부근 군막에서 군졸들을 모아놓고 경계와 수비를 지시 하고 있다가 김명원에게 왔다.

김명원이 수염을 쓸면서 말했다.

“자네를 데리고 출진하는 것을 또 미뤄야겠네.”

“어제까지만 해도 소장에게 수군대장을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김명원이 김억추를 수군대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협공작전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북쪽의 보통문과 칠성문을 조명연합군이 치는 동안 김억추의 군사는 양각도에서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 남쪽의 대동문이나 장경문을 기습하는 것이었다. 김명원이 김억추를 달래듯 말했다.

“실망하지 말게. 또 기회가 올 것이니까. 전하께서 자네를 놓아주지 않으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결국 김억추는 조명연합군에 합류하지 못하고 행재소에 잔류했다. 명나라 부총병 조승훈은 북로(北虜)와 여러 번 싸워 이긴 경험이 있어서인지 자신만만하게 진격했다. 평양성에 있는 왜군 정도는 초전박살 내겠다고 장담했다. 순안을 떠나 평양성 외각에서 조승훈의 명군과 김명원의 조선관군이 합세했다. 조명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조승훈이 되었고 공격개시도 그가 주도했다.

7월 15일. 부총병 조승훈은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중에 공격을 개시했다. 어쩐 일인지 내성의 칠성문과 중성의 보통문, 외성의 선요문은 열려 있었다. 조승훈은 괴이하다고 생각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조명연합군의 사기가 중요했다. 조승훈은 김명원의 조선군이 뒤를 엄호하게 한 뒤 자신의 군사는 내성으로 신속하게 들어가 속전속결로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조승훈은 고니시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었다.

성 내부에 매복해 있던 왜군들이 일제히 조총을 쏘아 명군을 혼비백산케 했다. 갈팡질팡하던 명군은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를 냈다. 특히 유격장 대조변과 사유가 전사했다. 명장이라 불리던 조승훈이라도 별 수 없었다. 사상자를 더 이상 낸다는 것은 장수로서 도리가 아니었다.

“퇴각하라!”

전멸에 가까운 참패였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를 가볍게 여긴 대가였다. 김명원은 조승훈의 명에 따라 다시 의주를 돌아왔다. 오만방자하던 조승훈은 접빈사인 유성룡을 만나지도 않고 요동으로 건너가 버렸다.

명나라에 들어가서는 왜군에게 조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참패했다며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선조가 김명원을 불러 물었다.

“패인이 무엇인가?”

“왜군에게는 조총이 있습니다. 몽골이나 여진과 다르습니다.”

“사상자는 어떠한가?”

“명군은 전멸하다시피 했고 후방에 있던 우리 군은 사상자가 거의 없사옵니다.”

“도원수에게 비책이 있는가?”

“기회를 주신다면 김억추와 함께 출진하겠습니다.”

“언제 출진하겠는가?”

“평양의 왜군 사기가 크게 떨어질 때입니다. 멀지 않을 것이옵니다.”

김명원은 평양성 왜군의 사기가 반드시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바닷길을 통한 군수물자의 보급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바다를 장악한 이순신 수군의 숨은 공이었다. <계속>